

<2022년 5월 1일 주일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

[시대 성경]

너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

그리하면 하나님도 네가 마음에 드시니, 함께 하시리라.

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것이니라.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그 마음에 의로 여기시고 같이 행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6~40절]

[사도행전 13장 22절]

[민수기 12장 7~8절]

-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입니다.

- 본문 말씀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함께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 <사람>끼리도 ‘마음’에 들면 서로 통하고, 같이 행하게 됩니다.

-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택하여
‘이 시대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를 이뤄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와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펴 올 수가 없었습니다.

- <섭리사를 따라 행하는 모두>는
그동안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하며 역사를 펴 왔습니다.

-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와 마음>에 들면,
그와 함께 ‘역사’를 펴고 ‘뜻’을 이루며 행한다.” 하셨습니다.

-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중심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 <노아>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고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했습니다.

- 하나님은 <노아의 완전함>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수심판>을 하실 때,
방주가 다섯 달 동안 물 위에 떠 있어도 이상이 없도록
완전하게 만들게 하여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완전하게’ 행해야,
<육>도 <영>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이하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행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음에 들어 하시며
축복해 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며, ‘그 시대의 뜻’을 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고,
<그 자손들>은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 <요셉>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고로 <요셉의 충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꿈’으로 받고 행하여
‘애굽의 총리대신’까지 되게 해 주셨습니다.

-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다.

그에게는 내가 대면하여 직접 말씀해 준다.” 하셨습니다.

고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 백성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 <엘리야>, <에스더>,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모두 죽음에서 살려 주셨습니다.

-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이 마음에 드셨는지
‘성경에 나온 몇 가지’를 말해 보면,
 - ▶ 첫째,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습니다.
 - ▶ 둘째,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하심을 믿었습니다.
 - ▶ 셋째, 사울 왕이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며 쫓아다녔어도
원수를 사랑으로 대해 줬습니다.
 - ▶ 넷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 ▶ 다섯째, 용감하여 전쟁을 잘 지휘하고, 나라를 잘 지켰습니다.
 - ▶ 여섯째,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든다.”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다윗의 몸〉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윗의 몸〉이 ‘내 마음’에 든다.” 하셨을 것입니다.

-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정’이 가고 ‘사랑’이 갑니다.

- 〈자기 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는 어려워도,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죽으면서까지 실천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 지금까지 말씀한 〈성경의 중심인물들〉같이

〈믿음〉도, 〈충성〉도, 〈사랑〉도, 〈완전함〉도,

〈말씀〉도, 〈행함〉도, 또 〈자기 마음〉도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때마다 합당하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라고 <시대 말씀>을 외쳐주어 행하게 했습니다.

- 하나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자>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 <이 시대의 근본 문제>는
‘성경의 근본’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의 근본>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그 목적’을 같이 행해 주십니다.

- ▶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임을 알고 깨닫고
<부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사니,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그 목적’을 같이 이뤄 주셨습니다.

- ▶ <육적 사랑>이 아니라 <영적 사랑>임을 알고 깨닫고
<사랑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같이 사는 삶’을 살아 주고 계십니다.

- ▶ <육 휴거>가 아니라 <영 휴거>임을 알고 깨닫고
<휴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믿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를 이루며 행해 주셨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의 근본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합당하게 행하니,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고,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 4000년 동안

‘그 시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오시며 ‘하나님의 뜻’을 펴셨고,

〈신약시대 때〉도 2000년 동안

〈메시아 예수님〉을 중심해서 ‘그 시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며

‘구원역사’를 더 완전하게 펴 오셨습니다.

〈이 시대 섭리역사〉도 역시

〈시대 사명자〉를 통해 ‘이 시대의 근본 문제’를 고치고 해결하면서

천 년 동안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역사’를 완전하게 펴 나가십니다.

- 아직도 〈각 개인이나 섭리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근본 문제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함께 행해 주십니다.

-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 〈사람의 근본 문제〉는 다른 말로 ‘근성 문제’라고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핵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 <무지>도 ‘사람의 근본 문제’입니다.
- <자기 근본 문제>를 잘 파악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가령, <뼈가 부러진 사람>에게는

‘살이 찢어진 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고,
‘뼈가 부러진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부러진 뼈>를 치료해야,

‘찢어진 살’도 근본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 <더러운 옷>은 ‘그 옷을 깨끗이 세탁하는 것’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 <야심작>을 쌓을 때도 근본 문제인 ‘각도’가 안 맞고,
‘하나님의 구상’에 안 맞으니 계속 무너졌습니다.

<근본 문제>를 알고 해결하고 쌓으니,

‘여섯 번째 쌓은 것’은 안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하게’ 든다고 하셨습니다.

- 각자 <자기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이 시대 창조 목적의 뜻>을 기뻐하시며 편안하게 쉼을 나가십니다.

- 사역자들이 <기도동산 하나님의 길>을 매일 청소해도
매일 ‘소나무 잎과 꺾질들’이 떨어지니
‘청소 거리’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이에 성령님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셔서
‘길 좌우에 있는 소나무의 꺾질’을 모두 깨끗이 벗겨냈습니다.

나무꺾질이 ‘열 포대’도 넘게 나왔습니다.

그 후에는 <청소 거리>가 많지 않아 청소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약간의 소나무 잎’을 쓸고, ‘물청소’하는 정도였습니다.

- 이같이 청소해 놓고 나서,
하루는 <하나님의 길>에 ‘소나무 잎’ 몇 개가 떨어져 있어서
또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으시겠죠?” 하고 말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와는 <어떤 것>이든지 ‘근본 문제’를 두고 말한다.

이번에도 <소나무 잎 몇 개>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문제>를 두고 말한 것이니라.

<매일 떨어지는 소나무 잎과 꺾질들>을 주우며

‘청소 거리’가 많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좌우의 소나무 꺾질〉을 다 벗겨내서
‘청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듯이,

〈섭리사의 모든 자들〉도
〈자기 근본 문제〉를 깨닫고, 깨끗이 청소하고 없애야 된다.

나 여호와도, 성령도
누구든지 〈마음에 드는 자〉와 함께하며 같이 살아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 진실로,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사는 삶〉을 이루기 위해 동행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함께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

- 금주에도

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같이 행해 주시고, 같이 살아 주십니다.

- 오늘 말씀을 총정리해서 결론으로 말해 주겠습니다.

- 하나님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물건>도 ‘마음’에 들면 사게 되고,
 <사람>끼리도 서로 ‘상대의 마음’에 들어야
 사랑도 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말씀해 주겠습니다.
- 첫째,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선지자나 메시아>를 절대 믿어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 셋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고 풀어 드리고,
 <그 행하심>을 알아 드리고 따르면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 넷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같이 사는 삶>을 약속하고,
 ‘변하지 않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 다섯째,
 누구든지 <자기 근성>과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중심>하지 않고 <말실수 없이 사는 자>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 여섯째,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며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자〉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사는 자〉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자〉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을 절대 믿는 자〉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은 날을 보기 위해 말을 금하며, 좋은 말만 하는 자〉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며 ‘하나님의 것’ 으로 삼으십니다.

- 이외에도

〈하나님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 인지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